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사이를 오가는 우리들을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세상 염려와 근심의 풍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빛 고요함을 허락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생명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해주십시오. 상대의 눈에서 티끌을 보기보다는 그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영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성심으로 수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벧전5:6-7 인도자

♠ 교 독 문 51. 히브리서11장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78.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다함께

성경봉독 I. 마10:26-31 인도자

II. 출18:19-23 김준호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두려워해야 할 분 장영숙 전도사

II. 신뢰와 위임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일들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통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약속된 하늘의 평화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구역회/동호회 | 말씀 : 김재흥 목사 |
| 아름답도다, 성도의 사귄! | 기도 : 이성운 전도사 |

| | | | |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 김태환 선생 방문성 장로 | 인도자 최성애 집사 |

| | | | | |
|-----------|------|---------|---------|---------|
| 1월 | 영접위원 | 조병무 박창운 | 고사일 곽혜자 | 허정운 최영선 |
| | 헌금위원 | 김철수 김준호 | 하현철 구명자 | 안정숙 박홍재 |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도 되나요?

<< 누가복음16:1-9

민영진 목사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의 문장이나 구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진술된 내용 자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눅 16:8-9에 나오는 말씀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이 ‘뇌물’과 다른 게 뭔가요?

열 받은 신자 드림

열 받은 신자 님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그렇다니, 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뇌물’이나 ‘부정축재’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우리 일단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기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직업을 잃은 다음을 염려하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어날 때에, 자기를 팔시하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빚 문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기름 백 말 빚진 자에게는 쉰 말이라고 쓰게 하고, 밀 백 섬을 빚진 자에게는 여든 섬이라고 적게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그러한 행동을 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위기에서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어리석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곧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에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어둠의 자식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은 자기가 평생 종사하던 청지기라고 하는 직업을 잃고

실직자로서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현실에 직면하여 회개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황인식이 둔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보다 더 슬기롭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거나 회사원이거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귀는 일이라면, 주인의 재산을 축내도 좋다는 말입니까? 공금을 횡령해서라도 친구를 사귀라는 말인가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일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의 비유는 약은 생각과 사기 행각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몫이 약속된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눅6:20) 가운데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빛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해 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심기가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처럼 ‘없어질 것’ 곧 ‘없어질 재물’이라고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이 ‘없어질 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가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위해 불의하게 도적질하여 축재(蓄財)를 하면 망하지만, 불의한 재물, 없어질 재물을, 그 재물이 없어서, 혹은 그 재물 때문에 얽매어 있는 이웃에게 재분배한다면, 그가 스스로 재물 때문에 궁핍한 처지에 몰릴 때, 일찍이 그가 돌보았던 그 이웃이 그를 영접하고 끝내는 ‘영원한 처소’로 그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없어질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관건인 셈입니다. 우리의 송고한 구원이 이 한낱 ‘없어질 것’에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니요! 우리가 잊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그 이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이들이라니요!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빌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다니요! --민영진, <<바이블 FAQ>> 중에서

오누이

-김사인

57번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
 여섯 살쯤 됐을까 계집아이 앞세우고
 두어살 더 먹었을 머스마 하나이 차에 타는데
 꼬무락꼬무락 주머니 뒤져 버스표 두 장 내고
 동생 손 끌어다 의자 등을 쥐어주고
 저는 건드림 손잡이에 겨우겨우 매달린다
 빈 자리 하나 나니 동생 데려다 앉히고
 작은 것은 안으로 바짝 당겨앉으며
 ‘오빠 여기 앉아’ 비운 자리 주먹으로 탕탕 때린다
 ‘됐어’ 오래비자리는 짐짓 통생이를 놓고
 차가 급히 설 때마다 걱정스레 동생을 바라보는데
 계집애는 앞 등받이 두 손으로 꼭 잡고
 ‘나 잘하지’ 하는 얼굴로 오래비 올려다본다

안 보는 척 보고 있자니/하, 그 모양 이뻐
 어린 자식 버리고 간 채 아무개 추도식에 가
 술한테만 화풀이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멀쩡하던 눈에/그것들 보니
 눈물 핑 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원로목사 : 박정오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홍 |
|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 |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 |
|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 | |
|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 | |
|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강인식 김정숙 김철수 유영남 김춘려 김재흥 최희영
구명자 권미숙 김준호 곽혜자 김지윤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옥경 김정길 최숙화 김혜권 김훈동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방문성 박혜경 백승민 유명숙 백요현 배연희 박병구 박영희 박재실
박창운 허정윤 방 민 서원금 신윤정 윤석철 장혜숙 윤정덕 구성실
유중희 이재문 윤미경 윤수진 이봉옥 이정규 이인섭 이인웅 조병무
송양진 정완수 김재광 최종원 최명동 한상의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한선희 한진실

월정헌금:

김현영 정원석 조항범 오현정 최철수 객권희 이호원 고숙이 황자순
고재중 김명순 김미순 김성자 김수연 김정섭 김정애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현영 정원석 문금석 문복순 문홍일 배부례 배제선
박병구 박어진 박옥순 박춘희 이기분 서정순 송의섭 송임희 안길상
이형숙 우영규 유혜경 류건형 이갑재 이광섭 이민범 이봉배 이정은
이희균 김영한 전영자 정두리 정현창 조병주 조순덕 황경순 조항범
오현정 하정석 이명희 하재두 하현철 최성애 황원순

감사헌금:

박숙현 한선희 김 극 오진훈 노순옥 유 형 김연희 김경희 정종삼
홍순구 안홍숙 장병림 고재중 백요현 권미숙 조항범 오현정 최미선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이미혜 송동준 김진경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기석 왕수명 이교영 (누계: 25,150,000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9:8)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구역회** :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친교실에서 구역회로 모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구역회원-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각 부 부장, 남녀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장, 교회학교장, 당회서기, 감사)
2. **동호회** : 금년도 동호회 활동의 첫 모임입니다. 뜻을 새롭게 하여 귀한 사권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23일(화) 오전 10시에 한마음교회에서 열립니다. 남선교회 계삭회는 같은 날 오후 6시에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4. **아름다운 원로** : 수요일(24일) 오전 10시 30분에 새해 첫모임을 갖습니다. 알차고 보람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 **담임목사** : 21일(일) 저녁부터 24일(수) 저녁까지 열리는 강화북지방 교동 지역의 부흥사경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 27일(토) 주방 봉사 : 김애경 안정숙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송임희(남편 추모), 백승민(생일)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